



데이터베이스월드뉴스

Database World News

국정뉴스

■ 정보통신부

SW산업 육성에 1조4천7백억원 투입

올해부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소프트웨어회사 설립이나 개발 자금이 지원되고 통관절차 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를 수입,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보세빌당이 설립된다. 또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수출 신용장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올해 1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1조4천7백억원을 육성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학생, 기업, 연구원, 기업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첨단영상, 게임, 응용소프트웨어부

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에 2010년까지 1천5백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97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일환으로 2백4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개발비나 회사 설립비가 없는 예비 창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창업예비팀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개발사무실과 설비, 경영지도와 연간 5천만원정도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보통신정보 심의 강화, 시설서비스등 대상

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화정보나 컴퓨터용 데이터베이스등 각종 정보통신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전기통신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 관련



표준화 대상과 절차등을 규정하게 될 정보통신 부령이 별도로 마련,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6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게 된다. 이는 정보화사회에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고 있는 불량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는 해당 기관의 의견진술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농수산부, 원격영농기술지도 시범시스템 본격 가동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상으로 영농기술을 지도하는 “원격영농기술지도 시범시스템”이 개통, 가동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와 농림수산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수원)과 가축위생연구소(안양)·원예시험장(수원)·축산시험장(수원)등 4개 전문연구기관과 경기 안성군, 전북 김제군, 경남 함안군 등 3개 농촌지도소간 다자간 양방향으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원격영농기술지도 시범시스템을 구축,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등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총 9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번 원격영농기술지도 시범시스템은 전문연구기관과 농촌지도소에 각각 카메라·VCR·스크린 및 복호기 등 동영상을 전송·재생하는 다자간 양방향 상담시스템을 설치, 병충해의 실물이나 사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영농기술

을 지도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

멀티미디어산업 1천억원 투입

통상산업부는 멀티미디어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통산부는 올해를 멀티미디어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아 멀티미디어 종합시스템등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멀티미디어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키로 하고 오는 4월께 서울에서 일본 통산성과 제2회 멀티미디어 사업협력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 자리에서 양국간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시범서비스, 연구교류회 및 공동기술개발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멀티미디어협회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산업 단지조성 정보센터 설립등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전문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부

문체부, 10월부터 문화예술 정보 인터넷에 제공

문체부는 오는 10월부터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으로 불리는 인터넷(Internet)에 우리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터넷 연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문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의 진척 속도에 따라 오는 2천년까지 3단계로 진행된다. 이 사업이 완결되면 박물관 정보망, 미술관 정보망등 우리 문화·예술·관광 전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

접속컴퓨터(호스트)수는 약4백만대로 현재 1백40여개국의 3천5백만명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에는 약 1백 60개기관 1만3천여대의 컴퓨터가 등록돼 있고, 국내 이용자수는 약3만명에 이른다.

■ **특허청**

특허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본격 추진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실용신안 전산검색의 핵심이 되는 특허실용신안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이 사업을 전담할 기관으로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과 하나특허정보(대표 김익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은 지난 47년부터 오는 96년 6월까지 이미 출원돼 있거나 출원될 39만여건의 특허(요약서 작성)와 48만여건의 실용신안(인덱싱)을 입력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이중 반도체·고분자화학·자동차 등 3개분야의 특허 3만여건과 실용신안 4만8천여건을 올해안에 우선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8년까지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뉴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국내 유통 데이터베이스의 양적규모 크게 증가

- 국내 유통 등록 데이터베이스 전년도 보다 27% 증가

- 데이터베이스 유통기관도 전년도보다 52%증가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 진흥과 정보이용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유통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데이터베이스수는 '93년 714개에서 '94년 907개로 22% 증가 된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제작업체는 389개사에서 397개사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제작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이 국내 유통 데이터베이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기반구조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충과 보급을 통해 정보사회를 조기 정착시키려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 관련 산·학·연등의 데이터베이스 진흥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데이터베이스수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정보화 수준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유통데이터베이스의 현황 파악과 유통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등록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계분석은 데이터베이스제작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규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효율적 이용과 수요확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4년 12월말 현재 국내에서 상업적 또는 공공적 목적(사내용 데이터베이스제외)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개발중인 데이터베이스수는 총 907개로 조사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번째로 경제/산업에 관한 정보가 전체의 50%인 454개로 가장 많고 두번째로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가 45%인 408개로 일반국민의 정보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학술 및 기타 정보가 각각 34개, 11개로 나타나 경제산업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관심 이 되고 있고, '94년부터 개발 보



급증인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에 따라 일반생활 정보가 두드러지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유통하는 기관은 '93년에는 34개 기관에서 '94년에는 나우콤, 농협중앙회, 대한항공, 총무처전자계산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8개 기관이 늘어난 52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향후,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선 공공성, 시급성, 상품성,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금융세계상의 수혜 방안등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에 건의 할 방침이다.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기술지원 연구과제 발표

-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
-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산정기준 및 서비스이용 요금 체계 설정을 위한 연구 등 3개 연구과제 발표
-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과 21세기 정



보화사회실현을 위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주최하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기술지원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회」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렸다.

효율적인 정보의 유통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과 데이터베이스구축, 유통 및 이용에 관련된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DPC내에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표준화연구위원회(위원장 : 오해석 교수, 송실대)를 구성하여 상기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다. 표준화 대상범위 설정과 그 시급성에 따라 표준시안에 대해 연구·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표준을 제정한다는 취지아래 데이터베이스표준화연구위원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산정 실무작업반, 데이터베이스검색표준 실무작업반 및 데이터베이스검색명령어 표준작업반 등 3개 실무작업반을 편성하여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93년도의 연구결과 3개 표준화과제 연구에 대한 기초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표준화작업을 담당하는 기초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표준화작업을 담당하는 표준화분과위원회와 데이터베이스기술 및 관리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개발지원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3개 표준화과제 외에 개발지원분과위원회 산하에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설계·평가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 '93년도의 기초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초조사 및 연구수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기술지원 연구과제 발표회에 발표 내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개발

을 위한 종합지침서(발표자 : 이국희 교수, 건국대), 데이터베이스검색명령어 표준화(발표자 : 백두권 교수, 고려대), 데이터베이스분류체재 표준화(발표자 : 고영만 교수, 성균관대),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산정기준 표준화(발표자 : 오해석 교수, 숭실대)순으로 발표하였다.

이와관련하여 향후 DPC에서는 94년도에 발간된 3개 표준화과제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구축·설계·평가지침서를 기반으로 기본 표준안을 작성, 업계의견등을 수렴하여 먼저 단체표준으로 제정, 추진하고 추후 국가표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한국통신

한국인터넷 서비스 전국 확대

지금까지 서울지역에 한정적으로 제공되어온 세계 최대의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 이용이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한국통신은 최근 한국인터넷전국망 구축작업을 완료, 지난해 6월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한국인터넷(Kornet)"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

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인터넷 전국서비스를 위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인천·원주·청주·포항·전주등 전국 주요 11개 도시에 전용교환망을 설치하고 각지역간을 T1(1,544Mbps)급 고속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전국망을 구축하는 한편 미국의 인터넷 본부와 2백56Kbps속도의 안정된 해외 광케이블로 연결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인터넷 서버인 FTP, Gopher, Archie, Mail, DNS, IRC등을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접 접속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일반 전화회선을 이용하는 다이얼업 이용자를 위한 대용량 시스템으로 교체, 하드디스크의 사용공간을 국내 처음으로 3MB에서 10MB로 크게 늘렸으며 망 보안과 망의 안정성 유지를 고려해 인터넷 전국망 감시체계를 중앙및 지역의 이중 감시시스템으로 구축했다.

■ 한국과학기술원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공유 네트워크구축 추진

인공위성을 통해 획득한 각국의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국내 관련기관들이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들어 세계 각국이 위성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섬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별을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올해 하반기까지 위성 데이터분배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상청·산림청·수산청·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들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전파연구소·해양연구소·시스템공학연구소·자원연구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동센터는 이를 위해 캐나다 MDA社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각국위성의 영상데이터를 한국내에서 직접 수신해 처리하기 위한 영상처리시스템을 개발, 올해 중반까지 데이터수신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MOS와 JERS-1, 유럽의 SPOT 위성의 영상데이터를 직접 수신해 일본의 NASDA, 프랑스의 SPOTIMAGE 등과 공동연구 협력키로 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는 유엔·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위성자료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전산원

범죄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시급

경찰·검찰 등의 범죄경력자료 관리상의 지연과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원장이철수)은 “범죄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에서 경찰·검찰 그리고 법원 등 관련 기관들간의 연계성과 범죄처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죄관련 업무 및 정보흐름을 재설계(Reengineering)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위한

전산망의 연동 구축, *정보공유에 의한 업무처리 합리성 제고, *업무의 단순화 및 업무시간 단축, *효율적 데이터베이스구조설계 및 사생활보호와 업무절차설계 등으로 범죄 경력기록에 처분미상이라는 현상을 없애거나 최소화 하는 “처분미상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한국통신기술협회

전기통신 관련 용어 표준화 완료

정보통신분야의 민간 표준화기관인 한국통신기술협회(사무총장 문영환)는 정보통신부 자금 지원으로 91년부터 추진해온 전기통신 관련 용어 표준화 2단계작업을 최근 마무리짓고 업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보통신 관련용어 가운데 1만5천여개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한 “정보통신 용어사전”을 발간, 국내 통신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 관련분야에서 혼용·오용되거나 외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온 용어를 통일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시킨 용어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그동안 난맥상을 보여온 용어 표준화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간된 표준 용어 사전은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관리 및 컴퓨터통신, 화상통신, 위성통신, 통신망서비스 등과 관련된 최신용어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들을 대폭 수용하는 한편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외국용어를 우리말로 최대한 순화시켰다.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정보통신 용어 표준화와 용어사전 발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

롭게 등장하는 첨단 용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오는 96년, 2만개의 용어를 수록한 개정 증보판을 발간할 방침이다.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하이텔로 패션정보 제공

퍼스널컴퓨터(PC)만 있으면 서울에서도 세계 패션의 중심지 파리·밀라노 등지에서 유명 디자이너들이 개최하는 패션쇼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산업디자인 정보"라는 패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지난 1월부터 하이텔을 통한 서비스에 들어갔다. 작년년부터 시작, 연 2백억원씩 오는 97년까지 총 8백억원을 투자, 개발하는 "산업디자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직 1천여건 정도의 정보밖에 수록돼 있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정보량을 늘려 나가게 된다. 오는 97년에는 서울에 앉아서도 패션의 중심지 파리·밀라노 등에서 유명 디자이너들이 벌이는 패션쇼를 같은 시간대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섬유정보센터의 목표. 현재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디자인 일반 정보, 패션디자인 정보, 텍스트일디자인정보, 산업디자인정보, 이벤트정보, 인물정보 등 크게 6종. 일례로 패션디자인 정보를 검색하면, 밀라노·파리 등 세계 유명 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와 작품들을 찾아보면서 패션의 유행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인물정보란에 들어가 보면, 크리스티앙 디오르, 피에르 가르맹 등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와 경력 등이 잘 설명돼 있다. 이밖에 외국의 패션정책 및 패션시장, 섬유위원단의 디자인과 소재, 패션쇼일정, 유행색, 산업디자인 등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의 특성을 감안, 글자화면 뿐만 아니라 컬러 패션사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이미지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강점. 하이텔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DB뱅크

■ 데이콤 (천리안)

국세청 세무정보 - 우편민원 안내/서식 (220 종) 서비스 추가

천리안이 국세청 세무정보 서비스를 추가했다. 총 220종의 세무민원서식이 기존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천리안 국세청 세무정보는 <세무민원서식>을 캡처한 후 프린트를 하여 사용하면 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우편민원접수 이용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정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세무 관련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란다. 서비스명 : 국세청 세무정보(go Nntax), 천리안 TOP 메뉴 12번 '기업/무역/세무/물가' 부문 33번 '국세청 세무정보' 선택하면 된다. (제공기관 : 국세청)

■ 한국PC통신 (HITEL)

S/W 활용법을 강의 - 컴퓨터학당

하이텔을 통해 손쉽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다루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컴퓨터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보이는 이 서비스는 학원에서 강사가 교육하듯이 각종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알려 준다. 컴퓨터 학당은 Windows, OS/2를 비롯, Lotus/ Quattro, Excel, Dbase, SAS, Acad 등의 응용소프트웨어



어 강의실과 Clipper, C/C++, Cobol, Assembler 등의 언어 강의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연출도구인 Graphics 강의실 등 총 11개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강의실은 현직 대학교수님들이나 해당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맡게 되며 각 강의실은 강사들이 출판한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전반을 다루는 온라인 강의/자료실, 매주 강사들이 강의자료를 연재하는 연재 강의, 예상질문에 답변을 곁들이는 문답백과 및 이용자가 강사에게 쉽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묻고 답하기로 꾸며진다. 이들 강의실과 더불어 컴퓨터 학당에는 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자료실, 업계의 유명인을 초청해 그들의 컴퓨터관을 듣는 초청강사 특강, 해외 프로그래머들의 셰어웨어를 매월 담아낼 미래로 자료방 등도 서비스된다. 외국 소프트웨어의 영문 매뉴얼도 한글로 번역(현재는 일부), 손쉽게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 9. 게시판=> 컴퓨터학당 또는 초기화면=> 8. 과학/문헌=> 3. 컴퓨터=> 2. 컴퓨터학당)의 순으로 선택하거나 go comlearn 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포럼 개설

(주)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32bit 차세대 운영체제(Windows 95 및 Windows NT)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자들의 생생한 개발정보를 공유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포럼(go msdn)”과 “한글 윈도우 '95 베타포럼(go win95)”을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자격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포럼의 경우는 MSDN, ISV, IHVs 및 OEM 가입자이고, 한글윈도우 '95 베타포럼'은 한글윈

도우95 베타1에 등록된 이용자들이다.

윈도우용 S/W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어디서나 “go microsoft” -> 2.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포럼 “go microsoft” -> 3. 한글 윈도우 '95. 베타포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포럼을 이용하시려면 go msdn, 한글윈도우 '95 베타포럼을 이용하시려면 go win95 하면 된다. 하이텔 초기화면 -> 8. 과학/기술 -> 3. 컴퓨터 -> 2.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포럼 하이텔 초기화면 -> 8. 과학/기술 -> 3. 컴퓨터 -> 3. 한글윈도우 '95 베타포럼 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하이텔 이용시간 2백만시간 돌파

한국PC통신 하이텔의 월 이용시간이 지난 1월에 국내 PC통신업계 최초로 2백만 시간을 돌파했다. 한국PC통신(대표 김근수)의 이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하이텔에 접속한 이용자는 1천7백83만8천66명(중복접속)이었으며, 이들은 하이텔에 3천6백13만7천5백85번 접속해 2백14만3천7백96시간42분 동안 하이텔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용현황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볼때 이용시간으로는 31%, 이용자수로는 29%, 이용횟수로는 30% 증가한 것이다. 하이텔 이용자들이 1월 한달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PC통신 동호회로 총 54만8천9백67시간44분을 이용, 전체 이용시간의 25.6%를 차지했다. 2위는 대화실로 40만3백3시간8분(18.6%)을 사용했으며, 3위는 공개자료실로 33만1천84시간57분(15.4%)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게시판(8.5%), 생활/문화정보(5.8%), 하이텔특집(5.3%), 전자

우편(5.0%) 순이었다. 올 1월들어 이같이 이용 시간이 급증한 것은 하이텔의 주이용자층인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하이텔에서 제공되는 DB의 수도 93년말 3백개에서 94년말 4백85개로 증가해 정보의 가치가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PC통신은 올해중으로 3천3백50개 회선을 증설키로 하고 14.4kbps이상을 지원하는 고속회선 수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 에이텔 (POS-SERVE)

CompuServe에 Health Database Plus가 확대, 분리되어 서비스

포스서브를 통해 제공되는 CompuServe에 Health Database Plus가 확대, 분리되어 서비스된다. 확장서비스의 하나인 Health Database Plus(Go Hltdb)는 아래와 같이 건강에 관련된 두개의 분야로 분리되었다.

1. The Health and Fitness Journals Database:
보건, 건강 관련저널로 기존의 Health Database Plus에 포함되었던 모든 정기간행물.
2. Health Reference Books and Pamphlets Database:
건강 관련 참고도서와 팜플렛 데이터베이스로 의약품에 관한 정보, 의학 실험, 질병 외에도 "The Columbia Univ. College of Physicians & Surgeons Compleat Home Medical Guide" 와 "USP DI-Volume 2 Advice for the Patient:

Drug Information in Lay Language." 등과 같은 선도적인 의학 참고 서적들이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 The American Canser Society와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같은 기관, 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십 종의 팜플렛.

- * 건강 관련 참고서적과 팜플렛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사를 읽거나 다운로드 할 때 두 번째 것은 추가 처리요금이 있다.

국세청 민원서류 서식제공 서비스 안내

포스서브는 국세청 민원서류 서식제공서비스를 2월 8일부터 개시 했다. 현재 국세청 민원서류는 근로자소득공제신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 등 총 216개이다.

각종 서류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포스서브의 국세청 민원서류 서식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히 받아 볼 수 있다.

- * 서비스 개시일: '95년 2월 8일
- * 서비스 위치 : 초기화면 15. 기업/세무/무역 -> 7. 국세청 세무정보
- * Go 명령어 : Go Tax

<로알증권정보> 서비스 개시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의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우회등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서 현재 커다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에 발맞추어 20여년간 증권가에 몸 담아온 증권전문가들이 '로알정보통신'이란 법인체를 만들어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투자분석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로알증권

정보)를 개시한다.

<로알증권정보>에서는 포스서브를 통하여 정보제공과 새로운 주가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자 스스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 서비스 위치 : 초기화면 14증권/부동산/경제 → 32.로알증권정보
- Go 명령어 : Go Royal
- 서비스 메뉴

■ 나우콤(나우누리)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부동산뱅크> 서비스 개시

항상 최신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릴 <부동산뱅크> 서비스가 서비스 된다. 국내 부동산 정보의 선구자인 (주)정보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뱅크>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의 사진, 아파트 시세와 평면도, 가격변동 그래프, 분양 아파트의 내부구조까지 검색할 수 있는 화상정보 서비스이다.

일반 문자정보 외에 화상정보를 검색하실 때는 '화상지원통신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동산뱅크> 서비스는 아파트시세분석, 금주의 아파트시세, 금주의 아파트분양, 온라인 모델하우스, 지하철권역 아파트정보, 부동산뉴스, 사진으로 보는 매물, 공동주택매매, 공동주택임대, 단독주택매매, 상가/사무실임대, 토지/임야매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뱅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25.증권/부동산'을 선택한 후 '21.부동산뱅크'를 선택하거나 'Go House'하면 된다. (주)정보성의 <부동산뱅크> 서비스는 분당 100원의 부가이용료가 적용

된다. 매일 갱신되는 부동산 뉴스와 아파트 분양공고가 날때마다 갱신되는 분양공고 정보는 내집 마련계획을 가지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파트분양 입주와 관련된 업체에게는 사업계획, 영업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내집 마련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릴 <부동산뱅크>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

<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 서비스 개시

국내 5대 일간지의 하나인 <한국일보>와 전통의 스포츠지 <일간스포츠>가 2월 15일(수)부터 서비스 개시된다.

1. <한국일보> 서비스는 정치/행정/외교, 사회/교육/교통, 국제뉴스, 북한뉴스, 스포츠, 문화/예술/과학, 서울/지방뉴스, 사설/칼럼/고정물, 인사/동정, 여성 저널, 연재물 등의 뉴스정보와 경제정책/무역, 증권, 산업/기업, 금융/보험, 부동산, 시황 등의 경제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경제정보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문정보이므로, <한국일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간지와 경제지를 동시에 보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한국일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21.뉴스/인물'을 선택한 후 '14.한국일보'를 선택하거나 'Go Han-Kook' 하면 된다.

2. <일간스포츠> 서비스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스포츠종합, 해외스포츠, 방송/연예, 문화, 스타스토리, 박영민 교수 골프교실, 김성종의 추리소설, SF 명작감상, 김승전 우화, 오늘의 운세, 기타 고정물, 레저, 생활, 사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간스포츠>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일간지로서 신속한 스포츠 뉴스뿐 아니라 연예, 소설 등의 여러 흥미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nc**